『삼국유사』〈신라시조 혁거세왕〉 기사 '五陵' 신화의 '地上的' 의미*

신연우**

【국문초록】

『삼국유사』에 전하는 바, 승천했던 박혁거세의 시신이 분할되어 땅으로 떨어졌고 모아서 합장하려 하자 큰뱀이 이를 막았기에 따로따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박혁거세 신화의 결말은 우리 건국신화로서는 예외적이고 특이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집트 신화에서 몸이 열 네 조각으로 갈라져 땅에 묻힌 오시리스나 파푸아뉴기니의 서세람 섬에 전해오는 곡물기원신화의 하이누웰레와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비교해보면 혁거세 신화에서 굳이 혁거세가 하늘로 가버리지 않고 그의 시신이 나뉘어 묻힌다는 것은 지상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몸이 다섯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가 다섯으로 분화되었다는 말이다. 주몽이 그대로 하늘로 가버린 것은 지상의 몸조차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육신도 한계가 명확한 것이어서 신이 되어서는 한계를 갖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타냈다. 즉 주몽 신화는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몸을 가졌던 주몽이 죽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초월적 존재 추상적 존재로 통합되는 측면이 부각된다. 이에 반해 혁거세의 시신은 분화된다. 이를 통합과 분화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은 주몽은 초월적 존재로 우주와 통합되고 죽은 혁거세는 통합이 아니라 분화되어 지상에 남았다. 혁거세 신화가 지상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점을 다시 잘 보여주는 것이 뱀 화소이다. 혁거세가 하늘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16-0681)

** 서울과기대

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원리이고, 통합을 막는 일이다.

오릉에 묻힌 임금들은 신화적 통치가 아니라 지상 세계 인간을 향하는 현실적 통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구려 초기 임금들이 여전히 신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시조 임금의 죽음의 형식의 차이와 같다. 주몽의 승천이 보여주는 천상적 원리가 유리왕과 대무신왕으로 이어졌고, 혁거세의 오릉이 보여주는 지상적 원리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의 지상적 원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화 마지막의 큰뱀(大蛇)는 알영을 낳았던 계룡의 다른 이름이다. 오릉은 알영 쪽 즉 수신이나 지신 쪽에 더 친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영의 근거지로서 하늘보다는 땅의 질서가 강조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외지에서 수용된 혁거세 집단의 신화가 결합되었다고 생각된다. 대조적인 두 세력이 화합을 이루어 초기 신라를 형성하였으나, 뒤로 가면서 하늘 원리에 입각한 혁거세 세력은 자기 입지를 강화하지 못하고 4세기 마립간 시기에 이르면 알영 세력의 땅의 원리에 융화되어 버리게 된 역사적 과정을 신화적으로 나타낸 것이 혁거세의 오릉 신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상적 의미가 강조되는 혁거세 오릉 신화는 큰뱀을 계룡과 연관지어 보면 알영 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알영 집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용이 보여주는 풍요의 상징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왕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바, 풍요제의의 관점에서 용의 역할과 함께 혁거세의 몸의 산락되어 분장되는 것을 풍요 신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혁거세, 알영, 오릉, 신라, 주몽신화, 뱀, 오시리스

차례

1. 머리말
2. 주몽신화와의 비교
3. 통합과 분화의 의미
4.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
5. 맺음말

1. 머리말

『삼국유사』에 전하는 박혁거세 신화의 결말은 우리 건국신화로서는 예외적이고 특이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에 왕은 승천했다. 7일 후 遺體가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모아서 묻으려하자 큰뱀이 쫓아다니며 막았다. 머리와 사지를 각각 따로 묻고 五陵이라고 하였다. 또는 蛇陵이라고 하니 담엄사 북쪽의 능이 이것이다.[1]

경주 서쪽 오릉의 유래담을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걸로 그칠 수 없는 의문이 상당히 크다. 이 대목의 이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의 하나여서 조현설도 <혁거세의 이상한 죽음>이라 하며 『우리신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의 한 항목으로 넣었다.[2] 박태상은 7일은 영혼이 분리되는 기간이며, 농업사회의 신이란 비를 내리는 존재라는 장덕순의 지적[3]

1)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遺體散落于地 後亦云亡 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蛇陵 曇嚴寺北陵是也. 『삼국유사』, 「기이 1」, <신라시조 박혁거세>.

2) 조현설, 『우리산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116-125면.

과 인간희생물의 살점을 밭에 뿌리던 제의를 연관지어서, 큰뱀이 나타나 오체를 각각 장사지낸 것은 시신의 분장이 곡물신의 매장형식이라는 원리에 따라 풍요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4] 권우행은 큰뱀이 혁거세 왕릉을 지키는 사신이며, 혁거세의 죽음은 “승천과 함께 天地人의 새로운 질서를 수렴하는 동시에 지상을 수호하는 신”[5]이 된다고 하였다. 무라야마는 이는 혁거세의 시신을 나무 위에 풍장한 것으로 7일이 지나 그 뼈가 땅에 뿔뿔이 떨어진 것을 매장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뱀은 무엇이며 왜 합장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 자체만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집트 신화에서 몸이 열 네 조각으로 갈라져 땅에 묻힌 오시리스나 파푸아뉴기니의 서세람 섬에 전해오는 곡물기원신화의 하이누웰레와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6] 감자 같은 곡물을 잘라서 심는 것처럼 시신을 나누어 매장하는 것이 농업의 생산을 소망하는 풍요주술로 널리 인정된다. 그래서 가장 나은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혁거세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의 해당부분을 상세히 비교해서 타당성의 정도를 검토해보자.

혁거세 신화의 큰뱀과 유사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 신화의 세트이다. 세트는 왕인 형 오시리스를 시기하여 속임수를 써서 그를 살해하여 나일강에 버린다.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놓았지만, 세트는 “잠자는 오시리스를 발견하고는 오시리스의 몸을 열네 조각으로 잘라 이집트 이곳저곳에다 뿌려놓았다.”[7]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

3)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108-109면.

4) 박태상, 『한국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92면.

5) 권우행, 「삼국유사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 연구」, 『인문과학연구』 특집호, 동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123면.

6) 김열규, 「민속신앙의 생생력상징」,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80, 249면. 황패강, 「박혁거세 신화 논고」, 『한국서사문학연구』, 단대출판부, 1982, 161면.

이집트에는 오시리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열네 군데나 있다."[8]

혁거세의 시신이 다섯으로 나뉘어 따로따로 무덤을 만들게 되었던 것처럼, 오시리스의 시신도 열네 조각으로 나뉘어 열네 곳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혁거세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잘려 내려온 시신을 뱀이 방해하여 합치지 못하게 했는데, 오시리스의 경우에는 세트가 시신을 잘랐고, 이시스가 나중에 시신을 하나로 합해서 살아나게 되어 지하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오시리스 신화는 두 가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오시리스가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망자를 인도하는 사후세계 신앙을 이루기 위해 전개된다. <死者의 書>에 따르면 망자 자신이 오시리스로 인정되어 오시리스가 있는 저승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 다른 하나는 오시리스의 열네 곳의 무덤이 오시리스 사원이 되어 오시리스의 죽음이 곡물 생산 제의로 연결된다. 밀로 해체된 오시리스 신체상을 만들어 물을 주고 사원에 묻는다. 축제의 첫날에는 곡물로 만들어진 나체의 이시스가 눕혀지고 물로 적셔진다. 이런 모든 의례는 오시리스 신앙이 곡물 생산 신앙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9] 프레이저는 이시스는 옛 곡물정령이고 오시리스는 새로운 곡물정령이라고 설명한다.[10]

혁거세 신화의 경우는 잘라진 시신을 다섯 곳에 묻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어서, 그것이 곡물신앙과 연결되지도 않고 죽은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후신앙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저 오릉의 유래담으로서의 기

---

7) J. F. 비얼레인, 현준만 옮김,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 1996, 294면. 아래의 책도 참조.
서규석 편저, 『이집트 사자의 서』, 문학동네, 2006, 78면.
E. A. Wallis Budge, *The Egyption Book of the Dead,* Tess Press(New York), 2007, Introduction, li.

8) J. F. 비얼레인, 위의 책, 같은 곳.

9) https://en.wikipedia.org/wiki/Osiris#Early_mythology

10)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1994, 511면.

능만 가질 뿐이다. 그나마 『삼국사기』에서는 박혁거세,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 등을 사릉에 장사지냈다고 되어 있으니 삼국유사의 오릉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체 산락이나 뱀의 방해나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민긍기는 서쪽에 있어서 '불ᄆᆡ'였던 것이 ᄇᆞᄆᆡ, ᄇᆡᄆᆡ가 되어, 여기에 한자어 릉이 붙어서 ᄇᆡᄆᆡ릉 즉 뱀릉, 한자로 蛇陵이 되었다고 보았다.[11] 그렇게 종결되고 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일이므로 오시리스의 시신의 사례로 미루어 혁거세 신화도 곡물기원신화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매장하여 곡식이 나서 자라는 신화는 세계 도처에 있어서 혁거세의 시신 분장을 그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세람섬의 하이누웰레도 처녀의 시신을 잘라서 나누어 묻은 곳에서 식용 구근 작물이 생겨났다고 한다.[1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주도에는 악한 계모가 응징되어 그의 몸이 잘라진 것이 소라 전복 말미잘 등이 되는 무속신화가 있으며,[13]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 살해한 사람 무덤에서 밀이 나타났다는 밀 기원 신화도 있다.[14]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풍요 기원 신화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혁거세 신화 원문에 보다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때이다. 특히 주몽 신화가 보여주는 승천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신화에 대한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바 오릉

---

11) 민긍기, 「진해시 웅동 도미묘에 관하여」, 『유천 신상철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문양사, 1996, 601면.

12) 옌젠 외 1, 이혜정 옮김, 『하이누웰레 신화』, 뮤진트리, 2014, 114면.

13) <문전본풀이>,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00면.

14) 김헌선, 『옛이야기의 발견』, 보고사, 2013, 122-123면에 밀의 기원 또는 술의 기원 설화가 14편 소개되어 있다.

의 주인이 혁거세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역사학계의 연구도 아울러볼 필요가 있다.

2. 주몽신화와의 비교

승천했던 박혁거세의 시신이 쪼개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 모아서 합장하려 하자 큰뱀이 이를 막았기에 따로따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혁거세 신화 본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내용과 대조되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몽의 승천이다. 『삼국유사』에는 주몽의 죽음 이야기가 없고 『삼국사기』에는 41세에 승하해서 용산에 장례 지냈다고만 되어 있다. 주몽의 승천이 언급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 재위 19년에 승천하고 내려오지 않았다.(가을 9월에 왕이 승천하고 내려오지 않으니 나이가 40이었다. 태자는 남기신 옥편을 용산에 장사하였다고 한다.)[15]

주몽이 승천해버렸기 때문에 유리태자는 아버지의 시신 대신 옥채찍으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승천까지는 같은데 주몽은 돌아 내려오지 않았고 혁거세는 몸이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땅으로 떨어졌다. 두 신화가 이렇게 뚜렷한 대조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의 부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몽과 혁거세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주몽인 알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버려지고 혁거세인 알은 모두의 환호 속에 등장

---

15) 在位十九年。升天不下莅(秋九月。王升天不下。時年四十。太子以所遺玉鞭。葬於龍山云云).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3, 古律詩, <동명왕편>.

한다. 주몽인 알은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이는 불길한 일'이라며 마굿간에 버리고 산 속에 버린다. 이와 대조적으로 혁거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서 동천에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빛이 났다고 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고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아졌다고 한다.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기 때 버려져서 인연이 끊기거나 해서 영웅은 아버지의 영향로부터 벗어난 존재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신화의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 방식이다. 영웅은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이므로 미미한 아버지의 존재를 감추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궤네기또 같은 더욱 고대적 영웅은 약한 아버지를 힘으로 물리치기도 한다. 혁거세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마 이미 존재하던 6부의 촌장이 혁거세를 초치했고 혁거세는 이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주몽은 태양신인 해모수와 지상 여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고 혁거세는 6촌장의 和議 끝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 신화들이 건국의 과업을 수행하던 고대의 영웅들 이야기이고 이는 남성적 질서로 세계를 재편하던 시기였음을 연관지어볼 때, 주몽의 경우는 아버지는 감추어져 있고 지상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점이 부각되어 괄시를 받았다고[16]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미혼모의 자식이었기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혁거세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남성적 질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6촌장의 회의 뒤에 모셔진 것으로 혁거세의 아버지는 6촌장으로 상징되는 남성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

16) 주몽의 아들인 유리도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먹고, "일정한 아버지가 없으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겠습니까?"하고 자살하려 하였다. 주몽은 아버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버려졌다는 화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행적 또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몽은 어려서부터 핍박을 받았고 투쟁을 통해 자기를 성취해 나간다. 대소 형제와의 싸움 끝에 부여를 떠났고 송양과의 싸움 끝에 고구려를 확립한다. 이와 달리 혁거세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관심거리였고 태어나서는 환영을 받았고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는 계룡에게서 태어난 알영과 짝이 되는 이야기이다. 알영은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와 대조를 이룬다. 혼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하늘과 땅의 결합은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 결합은 조화로울 때 가장 의미가 크다.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알영은 같은 날 태어나 같은 해에 왕과 왕비가 되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알영의 행실이 어질어 내조를 잘 하니 사람들이 二聖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몽은 12세에 고구려를 세웠고 혁거세는 13세에 왕으로 추대되었다. 물론 실제 나이는 아닐 것이다. 알에서의 탄생을 청년이 입사식을 통해 사회적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입사식 후 12년 또는 13년 만에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40 또는 41세에 주몽은 하늘이 마련해 준 궁성으로 승천했고, 혁거세는 83세에 승천했는데 혁거세의 신체가 흩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자.

	주몽(bc 57-bc19)	혁거세(bc69-ad4)
탄생	알 (버려짐)	알 (환영)
행적	투쟁	혼인
죽음 후	승천 (神)	승천 (五體散落)

알로 태어나는 시작은 같은데 결말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주몽은 승천하여 천신이 되고 혁거세는 땅으로 떨어져 그의 신체가 오릉으로 나뉘어 묻혔다. 일반적으로 보아 지상에서 투쟁을 겪고 승리하여 건국의 영웅이 되고 죽어서는 신으로 승격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지상에서의 과업을 다 이룬 영웅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은 지상에서 인간 세상의 일이 종료되었음과 함께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일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초월적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사령굿에서 굿을 마치면 망자가 조상신이 되는 것처럼 죽은 영웅도 신이 되어 초월적 위치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혁거세는 승천하였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몸이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떨어졌고 합칠 수도 없게 되어 따로 5개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니 이해하기 어렵다.

투쟁 끝에 승리하여 승천하는 주몽과, 지상의 여인과 혼인으로 화합을 보여주지만 승천에 실패하고 지상의 존재로 남는 혁거세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승천은 대립과 투쟁의 승리에 대한 결과라면, 지상과의 화합의 결과는 지상에 남는 것으로 보인다. 혁거세의 혼인이 하늘과 땅의 혼인이고 하늘과 땅의 혼인이 농업과 생산의 의미를 갖는다면 혁거세 신화는 보다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사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주몽은 승리를 통해 세계를 제압하는 일원적 질서의 모습을 더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혁거세 신화에서 굳이 혁거세가 하늘로 가버리지 않고 그의 시신이 나뉘어 묻힌다는 것은 지상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몸이 다섯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가 다섯으로 분화되었다는 말이다.[17] 주몽이 그대로 하늘로 가버린 것은 지상의 몸조차 버리고 영

17) 박태상은 이를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았다. 영혼 없는 육체만 땅에 남았다면 그 육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의 무의미할 것이다.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다. 주몽의 승천은 육체까지 올라간 것이어서 지상에는 장사지낼 신체가

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육신도 한계가 명확한 것이어서 신이 되어서는 한계를 갖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하늘로 올라갔다고 나타냈다. 즉 주몽 신화는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몸을 가졌던 주몽이 죽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초월적 존재 추상적 존재로 통합되는 측면이 부각된다. 이에 반해 혁거세의 시신은 분화된다. 이를 통합과 분화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은 주몽은 초월적 존재로 우주와 통합되고 죽은 혁거세는 통합이 아니라 분화되어 지상에 남았다.

3. 통합과 분화의 의미

통합은 신적인 존재와 더 관련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인도의 창세신화 하나를 보자. 최초의 자아(Self)는 혼자 있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자신을 나누어 여자를 만들었고 그녀와 교합하여 인간을 낳았다. 여자는 한 몸이었던 그와 교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암소로 변했다. 그러자 그는 수소로 변하여 이에 소들이 생겨났다. 암말로 변하고 암사슴으로 변하고…… 이와 같이 하여 세상에 모든 짐승과 만물이 생겨났다. 그는 "내가 만물을 지었으니 내가 곧 창조로다."하고 생각했다.[18] 기독교의 창세기도 같은 구도의 신화이다. 야훼신은 하나인 존재이다. 그가 하늘과 땅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온갖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남녀로 만든다. 즉 하나인 신에게서 만물이 분화된다. 하나는 신적인 것이고 만물은 지상의 것이다.

없었다. 영육으로 나눈다면 주몽의 영혼은 승천했지만 신체는 땅에 있어야 할 것이다. 박태상, 앞의 책, 90-91면.

18)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273-274면.

이와 같은 신화들은 창조란 하나에서 여럿이 분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는 하나이고 이로부터 지상의 만물이 비롯된다. 하늘은 一이고 지상은 萬이다. 이런 원리가 일관되게 지속된다면, 주몽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하늘과 통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늘과 통합하여 하늘과 하나가 된 자라야 지상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상적 존재가 갖는 육체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보편성 근원성을 갖는다. 이와 달리 혁거세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몸이 다섯으로 나뉜다. 이는 분화를 강조하는 형상화로 이해할 수 있다. 분화는 지상적 원리이다.

하늘이 통합을 나타내고 땅이 분화를 나타내는 원리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어서 중국의 오랜 경전들에도 언급되고 있다. 가령 『老子』 42장에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고 하고, 주렴계의 <太極圖說>에는 無極인 太極으로부터 陰陽의 兩儀가 나오고 양의가 변합해서 五行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남녀의 원리에 따라 만물이 화생한다는 도식을 도출하였다. 이런 원리는 신화는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로 나타냈고 철학은 추상화된 표현으로 압축적으로 진술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19]

이렇게 보면 주몽신화의 결말은 천상의 통합적 원리를 나타내며 혁거세 신화의 결말은 지상적 분화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인 도식에서 주몽은 투쟁 후에 신이 되고 혁거세는 결혼 이후에 몸이 나뉘는 구조의 대립도 이와 관련된다. 같은 알에서 출발했지만 주몽의 생애는 자아와 세계로 나뉘어 대립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겪은 후에 죽음을 통해 통합된다. 혁거세는 알영과의 혼인을 통해서 세계와 화합하는 과정을 보여준 후에 죽음을 통해 다시 분화된다. 나누인 것은 통합되고 통합된 것은 나뉘었다.

---

19) 이에 대한 논의로 상세한 것은 조동일, 「원시의 신화에서 고대의 철학으로」,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지식산업사, 2000, 65-86면.

(혁거세를 천신족으로 보거나 분열된 신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一者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로 임시로 '하늘의 원리'라고 하기로 한다. 대조적으로 원래의 신라를 토템 족으로 보거나 강한 호족 세력의 분화된 통치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임시로 '지상적 질서' 또는 '지상의 원리'라고 하기로 한다.)

혁거세 신화가 지상의 원리를 나타낸다는 점을 다시 잘 보여주는 것이 뱀 화소이다. 삼국유사 원문에 "나라 사람들이 모아서 묻으려하자 큰뱀이 쫓아다니며 막았다. 머리와 사지를 각각 따로 묻고 오릉이라고 하였다. 또는 사릉이라고 한다.(國人欲合而葬之 有大蛇逐禁 各葬五體爲五陵 亦名蛇陵)"는 것이다. 여기서 큰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합체를 막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을 막는 일이다. 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원리이고, 이는 바로 지상의 원리, 만유의 원리이다. 지상은 분화되어 존재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지상의 원리이다. 하늘의 원리가 통합인 것과 반대된다.

뱀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뱀이 지상의 존재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뱀은 날개는커녕 다리도 없다. 날기는커녕 뛸 수도 없는 존재이다. 온 몸을 지상에 붙여서 기어 다니고 지표면 아래에 들어가 쉰다. 뱀에 대한 수많은 설화들은 뱀이 지상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다시 창세기의 뱀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뱀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과 단절하고 지상적 존재가 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선고를 받는다. 북유럽의 신화집 『에다』에는 이그드라실이라는 거대한 세계수가 유명한데 그 나무의 맨 아래 뿌리 죽은자의 세계에는 니그호드라는 용이 거하고 있고 그 위로 인류가 거주할 수 있으며 난장이와 거인의 땅인 중간세계에는 요르문간드라는 뱀이 살고 있다. 이런 신화에 나타나는 뱀에 대하여 이경재는 "지모신 자연은……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이미지를 갖는다."[20]고 지적한다.

‘五陵’이라는 말도 혁거세의 무덤이 지상적 질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한다. 혁거세의 오체를 장례지내 오릉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체는 흔히 머리와 사지를 가리킨다. 거의 모든 번역본이 그렇게 번역했고 ‘오체투지’의 오체와 동일한 뜻으로 보았다. 그러면 정작 혁거세의 몸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혁거세의 오체라는 말은 몸 자체를 가리키기보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체라는 말이 상징적이라 함은 오체가 동서남북과 중앙의 五方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남북과 중앙은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우리 무가에서도 천지개벽을 흔히 닭이 날개를 들고 일어나면 부리와 꼬리, 양날개가 동서남북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세계의 질서는 나누어 놓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늘은 온통 하나여도 되지만 지상은 산과 강으로 나뉘고 인간에 의해 세분된다. 동서고금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이 중앙이고 그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혁거세의 무덤이 오릉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혁거세의 신적 질서가 지상적 질서의 원천이며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1]

오체라는 말을 땅에 떨어진 것은 사지와 머리이고 몸은 하늘에 있다고 보면, 우선 혁거세가 죽은 후에 하늘에 올랐다가 7일만에 유체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된다. 몸은 하늘에 있고 머리와 사지만 떨어졌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몸이 하늘에 있는 것은 혁거세의 몸이 분화되어 지상과의 연결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머리와 사지는 땅에서 일을

---

20)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240면.

21) 김선주는 오릉이 신라 초기 것이 아니라 마립간 기에 범부족적인 차원에서 국가 시조로 혁거세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이해했다. 김선주, 「신라의 오릉과 시조인식」, 『신라사학보』 33, 신라사학회, 2015, 10-21면.

하고 생각을 하여 지상적 질서를 구체화해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혁거세의 신적인 자격과 함께 지상적 영향을 아울러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와 생각은 지상에 있는 머리와 사지이니 주안점이 지상에 있다고 하겠다.

혁거세 신화의 말미 부분은 分化가 지상적 질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적 표현으로 보면 뜻밖에도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게 된다. 그것은 오릉의 주인의 행적이 지상적 관심과 통치를 보여준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오릉의 주인은 박혁거세와 알영,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이다. 4대임금인 탈해는 오릉에 묻히지 못했다. 이 점은 고구려 초기 왕들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혁거세의 경우와 대비적으로, 주몽의 승천이 천상적 질서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고 할 때, 그 이후 왕들도 그런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한다. 주몽의 아들인 2대 유리왕도 신화의 주인공이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신화적 능력을 보여준 일도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도 사냥 갔다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사람을 만나 등용하고 돼지가 도읍 옮길 장소를 알려주는 등 신화적 행적이 계속 나타난다. 3대 대무신왕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무신왕 4년에 부여를 칠 때, 비류수 가에서 솥을 가지고 노는 여인이 있어 가보니 솥만 남아 있어서 그 솥으로 밥을 지으니 불을 때지 않았는데도 밥이 지어졌다. 전투에서 곤경에 처하자 하늘에 도움을 빌었더니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7일 동안 지척에서도 인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 왕 때 유명한 사건 하나는 낙랑의 자명고와 왕자 호동 이야기이다. 이때까지도 적이 오면 스스로 운다는 자명고를 통해 신화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조 주몽의 승천으로 보여주는 신화적 질서가 계속 유효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들이라고 생각된다.

신라 쪽 사정은 전혀 다르다. 먼저 혁거세와 알영은 신화적 인물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앞에서 해명한바와 같이 신체가 다섯으로 나누어 묻힌다는 것이 지상적 질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그 이후 오릉에 묻힌 임금들도 그러한 성격이 농후하다.[22] 2대임금은 남해차차웅이다. 원년에 낙랑이 경주를 포위한 일이 있었다. 이 때 남해왕은 자신이 부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혀 신화적인 맥락이 없다. 남해왕도 차차웅이라 했으니 명칭에서 종교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3년째에는 친누이 아로로 하여금 시조 혁거세 사당의 사철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고 하니 제정분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대왕은 유리이사금이다. 이 때 도솔가가 지어졌는데 그 연유가 널리 알려져 있다. 왕이 순시하다가 할머니 하나가 굶어 죽게 생긴 것을 보고 "내 잘못이다"라고 하며 자기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먹을 것을 먹이고 "유사에게 명하여 홀아비, 홀어미, 고아, 늙은이, 병자를 급양하게 하니 백성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되어 도솔가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화적 질서가 아니라 지상적 통치의 원리로서 德治를 표방하는 것이다. 5대 파사이사금 때에는 이웃나라의 국경 문제로 난처해지자 왕은 나이가 많은 수로왕을 초대해 의견을 물어 해결한다. 나이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것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유리가 왕이 된 까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경험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거듭 나타난다.

중간의 4대 탈해이사금은 오릉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탈해는 대표적 건국신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동쪽 한 나라에서 알로 태어나서 버려져서 신라까지 오고 트릭스터로서 호공의 집을 빼앗는 등 신화적 인물의 행적이 농후하여 지상적 질서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탈해가 외지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혁거세도 외지인이라는 점을 보면 이 경우는 탈해의 신화적 성격이 부각되었다고

22) 혁거세의 오체산락을 시베리아 샤먼의 신체절단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샤먼은 통합이 필수 전제이지만 혁거세는 분화가 필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보인다.

이렇게 보면 오릉에 묻힌 임금들은 신화적 통치가 아니라 지상 세계 인간을 향하는 현실적 통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구려 초기 임금들이 여전히 신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시조 임금의 죽음의 형식의 차이와 같다. 주몽의 승천이 보여주는 천상적 원리가 유리왕과 대무신왕으로 이어졌고, 혁거세의 오릉이 보여주는 지상적 원리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의 지상적 원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의 오릉과 삼국유사의 오릉이 만난다. 삼국유사의 오릉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신라 초기 통치의 탈신화적, 지상적 원리를 함축하는 상징적 기사인 것이다. 하나와 다섯, 一과 多라는 통합과 분화의 상징적 의미, 혁거세의 오체와 오릉이 지상성을 부각하는 상징이라는 것은 신라사회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른 면에도 적용이 가능해보인다. 가령 신라는 고구려가 주몽의 고씨 일계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초기부터 박, 석, 김의 세 가지 성을 가진 왕들이 통치하게 된다. 해외에서 들어온 탈해까지 왕이 되는 다양성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서 하나보다는 다양성이 부각되었다. 혁거세가 태어나고 신라가 생겨난 것 자체도 이미 있던 6촌 촌장의 합의에 의해서였다. 혁거세가 왕이 되었지만 6촌 촌장의 역할은 지속되었을 것이고 혁거세가 혼자서 나라 일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화백제도, 화백회의로 나타났다. 화백은 28대 진덕왕 대에 김유신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유사 기이 진덕왕) 나타나므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이런 모습들은 초기 신라가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多의 양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였음을 말해준다. 오릉 설화는 이러한 신라 초기의 사회적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다툼을 하나의 초월적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타협에 의해 해결할 것이다. 초기에는 고구려가 강력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신라의 힘이 커진 데에는

이러한 자세, 타협과 회의에 의해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실적 태도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있을 수 있는 의문에도 답한다. 그 의문은 이런 것이다. 고구려가 하나로서의 천상적 질서를 지향하고 신라가 여럿의 지상적 질서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여럿은 다툼의 근원이니 신라는 다툼을 보여야 하고 하나는 통합의 근원이니 고구려가 조화를 구현해야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초기신라의 현실은 신라인으로 하여금 지상적 문제를 떠날 수 없게 했다. 지상적 문제는 대립이고 다툼이다. 그러나 신라는 이를 회의와 타협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실제로는 다툼도 많았지만 타협과 조화를 강조하는 쪽을 보여주었다. 혁거세와 알영의 혼인도 실제로는 부족간의 혼인이라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화합뿐이다. 고구려의 하나됨은 다툼과 투쟁의 결과이다. 하나는 초월적이고 관념적이어서 현실 문제에서는 강압적인 통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심지어 주몽 이전 해모수와 유화의 혼인에서도 둘의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부각되었다. 이런 대립을 힘으로 해소하고 하나로 집약한 것이 주몽이다. 여기에는 신화적 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고 보인다. 초기 고구려가 하나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신화를 지속하는 통치의 천상적 원리를 구현하고자 했다면, 초기 신라는 다양한 것의 현실적 싸움 속에서 실제적인 타협을 찾는 지상적 통치원리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4.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

또 하나의 의문은 땅으로 떨어질 오체는 왜 처음에 하늘로 승천했다가 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혁거세의 근본과 관련된다. 6부의 촌장이 임금을 모시자는 화의를 거친 후 혁거세는 알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흰색 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타나자 말은 하늘로 승천하였다. 그러니 혁거세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61년을 다스린 혁거세는 다시 원래의 상태인 하늘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지상에 머물게 되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오릉은 혁거세의 신체가 다섯으로 나뉘어 묻힌 무덤은 아니다. 그것은 신화적인 메시지일 뿐이다. 이런 신화적 메시지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 역사가 답해준다. 오릉 가운데 표주박형 무덤이라든가 적석목곽분이 있어서 이는 신라 초기의 무덤이 아니라 마립간이라 불리던 19대 눌지왕에서 22대 지증왕 으로 대표되는 4세기 전반기부터 6세기 초엽까지의 약 200년 간의 무덤이다.[23] 이에 따라 김선주는 후대 김씨 세습왕조의 성립 시기에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시조 전승 신화가 형성되었으며, 오릉 경내에는 알영이 태어났다는 알영정이 있고, 능호에 보이는 뱀이 수신적 지모신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오릉의 위치인 수변지역과 알영의 용 전승이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오릉은 오히려 알영과의 연관성이 더 크다고 말한다.[24] 마립간 기에 시조묘에서 신궁으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화 정비 사업이 있었다고 본다.[25] 혁거세 신화는 사로국 시대가 아니라 4세기 후반에 형성된 신라의 건국신화로 보는 것이다.[26]

---

23)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2008, 378면.

24)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181-189면.

25) 김선주, 「신라의 오릉과 시조인식」, 『신라사학보』 33, 신라사학회, 2015, 1-30면.

26) 선석열, 「사로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집, 2011, 4면.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270-288면.

이렇게 보면 신화 마지막의 큰뱀(大蛇)는 알영을 낳았던 계룡의 다른 이름이다. 뱀과 용은 서로 통하는 것인데 오릉이 북의 남천, 서의 서천과 연접해 있어서 오릉은 물가에 자리잡고 있다. 물과 관련된 큰뱀이 용일 터이니 오릉의 뱀 신은 곧 용신이다. 이는 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가는 백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점에서 김선주는 오릉 즉 사릉은 원래 용/뱀인 알영의 무덤이었으며, 후대에 혁거세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재편되었다고 보았다.[27]

역사학계의 연구를 수용하면, 오릉은 알영 쪽 즉 수신이나 지신 쪽에 더 친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28] 알영의 근거지로서 하늘보다는 땅의 질서가 강조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외지에서 수용된 혁거세 집단의 신화가 결합되었다고 생각된다. 6촌과 알영집단은 사로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혁거세 집단을 수용했다고 보인다. 통합은 하나로 만드는 행위이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추상적, 천상적 원리에 근거한다. 혁거세가 태어날 때 온 세상이 환영의 빛을 보인 것은 이러한 통합이 하늘의 뜻이라는 신화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혁거세는 알영과 함께 조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같은 날 태어나 13세에 함께 왕과 왕후가 되었다는 설정도 그 둘의 병존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몽 사후의 고구려와는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 계가 하늘 원리를 끝까지 밀고 가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신라 초기의 화합은 뒤로 가면서 실은 지상적 원리, 알영 집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늘 원리를

---

27)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호, 한국역사연구회, 186-187면.

28) 왜 '알영신화'가 되지 못했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다. 아마도 신라사회가 급속히 남성 중심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국가가 되는 등 중세국가로 정비되는 과정이 남성 중심의 사회 재편이었을 것이고 이는 신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고 가려는 노력이 바로 승천 화소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알영 집단으로 융화된 결과를 나타낸다. 혁거세를 추대했지만 알영 집단의 토속적 권력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뒷날 신라의 토속신앙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새로 유입되는 불교와 끊임없는 알력을 보인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혁거세를 맞으면서 신화성을 강하게 부각했지만 그의 사후에는 다시 알영의 지상적 통치 원리로 회귀하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대조적인 두 세력이 화합을 이루어 초기 신라를 형성하였으나, 뒤로 가면서 하늘 원리에 입각한 혁거세 세력은 자기 입지를 강화하지 못하고 4세기 마립간 시기에 이르면 알영 세력의 땅의 원리에 융화되어 버리게 된 역사적 과정을 신화적으로 나타낸 것이 혁거세의 오릉 신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뒷날 마립간 시기에 신라를 거국적으로 재편하면서 나라 전체의 시조로 혁거세 신화를 통해 신라 통합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나, 끝부분의 오릉 신화는 실제 초기의 역사적 전개였던 토착 세력의 승리와 그 통치 방식으로서의 지상적 원리의 구현을 드러냈다고 보인다.

5. 맺음말

이 글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 신화의 말미에 보이는 오릉 이야기를 이해해보자는 시도이다. 범세계적으로 보면 사체를 분장하여 풍요를 기원하는 신화에 속한다고 하겠지만, 혁거세가 농업과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어서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기도 하다. 이 글은 우선 우리 신화 와 역사의 체계 내에서 오릉 부분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주몽신화와 비교해보면 승천과 산락의 대비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 앞부분에서 알로 태어났으나 투쟁 끝에 승리하고 승천하는 주몽과 혼인으로

대표되는 화합을 보여주고 승천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혁거세가 뚜렷하게 대조된다. 주몽의 승천이 하늘로 돌아가 하늘과 하나가 되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혁거세의 산락은 多의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분화가 특징인 지상적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혁거세의 오릉 즉 사릉에 묻힌 후대 2, 3, 5대왕은 모두 신화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신화의 주인공인 4대 탈해는 사릉에 안치되지 못했다. 이는 승천하는 주몽의 후예인 2대 유리왕과 3대 대무신왕이 지속적으로 신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대비되었다.

하늘의 초월성보다는 지상적 분화의 특징을 더 많이 보여주는 신라 초기 왕조는, 알영 쪽의 김씨족이 혁거세의 박씨족과 합하면서 통합의 원리가 일시적으로 강조되었으나, 통합의 노력보다는 결국 김씨족의 영향 아래 포섭되어버린 역사적 과정과 일치한다. 혁거세 신화는 마립간 시기 김씨 왕조가 신라를 거국적으로 재편하면서 당시의 통합 과정을 재진술한 신화이고,[29] 오릉 신화는 결국 통합의 원리가 분화의 원리로 포섭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으로 생각된다.

지상적 의미가 강조되는 혁거세 오릉 신화는 큰뱀을 계룡과 연관지어 보면 알영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알영 집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용이 보여주는 풍요의 상징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왕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바, 풍요제의의 관점에서 용의 역할과 함께 혁거세의 몸의 산락되어 분장되는 것을 풍요 신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30]

주몽신화의 결말이 주몽의 승천이고 혁거세 신화는 지상으로의 귀환으

---

29) 신라 초기 사회 지배세력이 이원적 구도를 가지고 있었음은 널리 인정된다.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역사학보』 1집, 1952, 23-35면.

30)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혁거세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김수로왕의 경우에도 무덤을 훼손하려는 도둑들에게 큰 뱀(大蟒)이 나타나 막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의미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로 대조적이라는 점은 단군신화와도 흥미롭게 대비된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지만 그 둘의 통합이 일시적일 뿐이다.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웅녀에게 하늘의 환웅이 잠시 내려와서 인간으로 변신해서 혼인해 주었(假化而婚之)을 뿐이다. 하늘의 환웅에게 지상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고 하늘의 환웅과 지상의 웅녀는 임시로만 통합될 뿐이다. 이는 주몽이나 혁거세에 비해 중간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환인의 임시 혼인은 주몽의 투쟁과 혁거세의 혼인 사이에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산신이 되었다.(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는 단군신화의 결말과 맞아떨어진다. 주몽이 하늘로 갔고 혁거세가 땅에 있다면 중간적 과정을 보여준 단군은 산에 있는 것이다. 이 구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기이 1」, <신라시조 박혁거세>.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3, 古律詩, <동명왕편>.

권우행, 「삼국유사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 연구」, 『인문과학연구』 특집호, 동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두진,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김선주,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_____, 「신라의 오릉과 시조인식」, 『신라사학보』 33, 신라사학회, 2015.
김열규, 「민속신앙의 생생력상징」,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80.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역사학보』 1집, 역사학회, 1952.
김헌선, 『옛이야기의 발견』, 보고사, 2013.
민긍기, 「진해시 웅동 도미묘에 관하여」, 『유천 신상철박사 화갑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문양사, 1996.
박태상, 『한국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3.
서규석 편저, 『이집트 사자의 서』, 문학동네, 2006.
선석열, 「사로국의 지배구조와 갈문왕」, 『역사와 경계』 80집, 2011.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조동일, 『철학사와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지식산업사, 2000.
조현설, 『우리산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2008.
황패강, 「박혁거세 신화 논고」, 『한국서사문학연구』, 단대출판부, 1982.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1994.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옌젠 외 1, 이혜정 옮김, 『하이누웰레 신화』, 뮤진트리, 2014.
J. F. 비얼레인, 현준만 옮김,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 1996.
E.A. Wallis Budge, *The Egyption Book of the Dead,* Tess Press(New York), 2007, Introduction, li.
https://en.wikipedia.org/wiki/Osiris#Early_mythology

논문투고일 : 2016. 11. 8. 심사완료일 : 2016. 12. 3. 게재확정일 : 2016. 12. 12.

Abstract

A Reflection of Mythical-Historical Meaning of O-Reung(Five Tombs) of Shilla

Shin, Yeon-woo*

Samguk Yusa(The Tales of Three Kingdoms) tells us the story of the tomb of HyukKeoSe, the founder of Silla Dynasty; he died and ascended to heaven but the royal remains were divided into five parts and descended to earth. A large snake appeared and prevented the people from burying them in the same tomb and that is why we have 5 Tombs in Gyeongju. The story is too unusual to understand. So comparing the myth of Egyptian Osiris whose body was cut into 14 parts by his brother Set, some scholars insist that it is a similar myth implying fecundity through death and rebirth. In fact, Five Tombs are not the royal tombs of HyukKeoSe.

I compared it to Jumong's ascending to heaven in Koguryo birth-myth and came up with an idea that separatedly buried five parts of HyukKeoSe's body are meant to emphasize the land-based governing principle of Silla. The large snake represents the counteraction on the ideology of a nation trying to unify all countries.

While the early kings of Koguryo showed us their mythical power, the kings buried in the Five Tombs were actually not mythic heroes. They showed the pity for the poor and tried to find the sages, wanted common assent of all the members of the tribe headmen at the meetings.

There are also Aryoung's tomb, also popularly known as Snake Tomb, in Five Tombs. Aryoung, HyukKeoSe's wife, was born from under left side ribs of a chicken featured dragon, which seemed to be a similar character to the large snake appearing at the end of HyukKeoSe Myth.

Historians say that Five Tombs were constructed in the fourth century, not at the time of the death of HyukKeoSe. So we can understand as follows; there was Aryoung's tribe at the site of O-Reung at first, whose totem was a snake, but the tribe of HyukKeoSe from the North came and tried to unify the Saro Province as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whole, Around the fourth century, the tribe of Aryoung took the leadership on the basis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illa,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r. The myth of falling parted-body of HyukKeoSe seems to a symboliza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early Silla.

key words HyukKeoSe, Aryoung, O-Reung, Five Tombs, Osiris, Silla, snake